

경계 넘나드는 전시·공연...ACC서 즐기자

개관 5주년...시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다채

모션캡처+가상기술 새로운 극형식 공연 '비비런'
전통음악+전자음악+미디어아트 판소리 '두 개의 눈'
한국 현대사 흔적 체험 융합영상 '둥글고 둥글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오는 25일 개관 5주년을 맞아 전시, 공연, 영화제, 학술토론회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ACC는 "개관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창작제 전시, 참여형 가상현실(VR) 공연 등 ACC만의 고유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ACC FOCUS 전시 '이퀄리브리엄: 인간과 환경의 경계에서'를 오는 20일부터 내년 3월 14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3·4관에서 개최한다.

기후 변화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개인의 경험·사회·정치·역사적 측면에서 조명하고 평화적 공존과 연대를 모색한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는 2020 ACC 레지던시 프로그램 결과 전시 '바이오펠리아: 흙 한줌의 우주'는 24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복합1관에서 개최된다. 레지던시 참여자들의 교류와 작업 결과물의 온·오프라인 전시, 다큐멘터리 영상, 출판물 등으로 꾸민다.

장르의 경계를 허문 새롭고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모션 캡처 기술과 가상체험 기술을 융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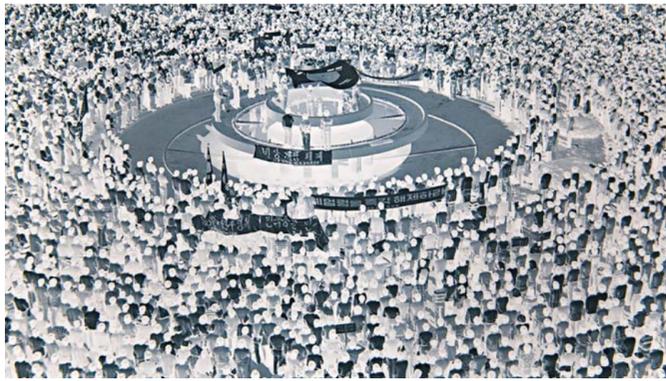


'비비런'을 20-22일 문화창조원 ACT스튜디오에서 선보인다. VR 헤드셋을 쓴 관객이 가상환경에서 디지털 캐릭터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게임을 즐기듯 체험하는 새로운 극형식 공연이다.

전통음악 융합공연 '두 개의 눈'은 20-21일 예술극장1 무대에 오른다. 호녀심청의 '눈 먼 놀이비 심학규'를 중심으로 전자음악, 미디어아트의 융합과 해체, 변형으로 완성한 판소리 공연이다. 새로운 경계를 탐험하는 두 예술가 그룹(무도, POSTMNH)의 협연을 통해 낯설이 놀라움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준비했다.

20-22일 문화정보원과 문화창조원에서



'둥글고 둥글게 Round and Around' 스타일 이미지.

"2020년 디자인랩: 소셜디자인워크"를 개최한다. 재활용(업사이클링)을 주제로 버려지는 자원이 새로운 가치와 쓰임을 갖게 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행사 기간 동안 재활용 공동연수, 영향력자(인플루언서) 강연, 환경 캠페인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관 5주년인 오는 25일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지원포럼과 손잡고 'ACC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강신겸 전남대 교수와 박신희 경희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ACC의 콘텐츠 중장기 발전 방향과 지역사회와 공존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ACC시네마테크 특별 프로그램으로 24일부터 29일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영화제도 준비했다. 영화제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해에 장립된 한국 최초 독립영화그룹 '알라성'에 대한 12개의 작품을 상영하는 프로그램1(변방에서 중심으로)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실험적인 융·복합 영상창작물을 상연하는 프로그램2(둥글게 둥글게 2020-1980)로 구성했다.

'둥글고 둥글게 Round and Around'는 1980년 광주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한국 현대사의 기억과 흔적을 체험할 수 있는 융합영상이다. 한국사회의 개발과 붕괴, 저항의 순간 등 역사의 변곡점들을 사진과 영상자료로 보여준다. 극장과 전시장을 확장시킨 블랙박스 공간에서 198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공간과 시간을 넘나드는 시청각 체험을 제공한다. 28일 오전 11시, 오후 3시, 7시 예술극장1에서 상영된다.

이밖에 지역 독립시점 10여 곳과 연계한 독서 진흥 프로그램인 'Enjoy 라이브러리파크-온라인 비밀책방'을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광주문화재단 온라인 영상 콘텐츠 '누리밥집' /광주문화재단 제공

"함께 음식 만들며 문화 나눠요"

이주민과 청년 함께하는 '누리밥집'
매주 수·금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

광주문화재단은 세계 10개국 이주 여성들이 각국의 독특한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조리법을 설명하는 온라인 영상 콘텐츠 '누리밥집'을 광주문화재단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를 통해 공개한다.

'누리밥집'은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의 청년들과 이주민이 함께 외국 음식을 만들며 각자의 문화를 나누는 문화교류 및 소통을 위해 기획됐다. 중국, 베트남, 일본 등 10개국 15명의 이주 여성들과 광주 지역 대학생 3명이 함께 출연해 15가지 요리를 배우며 소개한다.

'누리밥집'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지 몰랐다"며 "외국의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뜻 깊은 경험이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 영상 콘텐츠 '누리밥집' 영상에 나오는 음식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들로 구성됐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여행이 힘들어진 요즘, 이 영상을 통해 외국의 음식을 만들어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먹으며 이국적인 정취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 '누리밥집' 영상은 각 10분 내외의 분량으로 내달 30일까지 매주 수, 금요일 오후 5시 유튜브 '광주문화재단TV'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ACC 사진 공모전' 시상식 개최

3개 분야 375개 작품 접수...수상작 25점 최종 발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최근 ACC 라이브러리파크에서 개관 5주년 기념 'ACC 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ACC는 풍경(건축물·조경), 콘텐츠(공연·전시·축제), 인물(ACC를 배경으로 한 인물) 등 총 3개 부문으로 지난 8월부터 10월 18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65명이 참가해 총 375점을 출품했다.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1점), 우수상(3점), 장려상(6점), 입선(15점) 등 총 25점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으며, 수상자에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경선씨는 "ACC는 다양한 콘텐츠와 공간적 매력이 있는 곳이다"며 "수상작 온라인 전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ACC에 호감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수상작품은 AC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택트 전시'로 관람할 수 있으며 향후 홍보 이미지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연수 기자



최우수상을 수상한 최경선 작 '광장'

최운규의 인물&상상

소금통제는

소금병 안에만 있는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반드시 밖에 뿌려져야 합니다.

세상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합시다!

전남매일 연중 일자리 창출 캠페인

함께해요 청년창업!

청년의 열정을 복구가 응원합니다.

청년도약! 예비창업가에서 성공강소기업으로

청년창업 종합 지원 시스템

- 청년창업이 뿌리내릴 토양마련
- 청년창업이 움트도록 영양공급
- 청년창업이 열매 맺을 생태계 조성

광주광역시북구 일자리정책과 T. 410-6578
GWANGJU CITY BUK-GU